

EC 덤핑提訴와

對英輸出 交渉을 마치고

歐洲 經濟共同体(EEC)를 통하여 歐洲 13個 黑白TV 生産業체가 우리나라 3個 黑白TV 輸出業체에 대하여 歐洲市場에 있어서 덤핑 輸出을 하였다고 提訴하였다.

이들은 주로 佛, 伊, 및 和蘭의 主要 家電製品 生産業체들로서 佛蘭西의 Thomson-Brandt社를 위시한 4個社、伊太利 Indesit社外 8個社, 그리고 和蘭에 本據를 둔 Philips社 들이며 黑白TV의 全EC 市場需要의 50%를 生産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黑白TV는 對歐洲 輸出이 主市場이므로 이 提訴의 勝敗는 우리나라 電子製品 進出의 將來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本振興會는 該當業체들과 합심하여 여러 資料를 EC執行委에 제출하고 提訴의 不當性을 主張하여 왔다.

한편 EC執行委에서는 쌍방의 意見과 主張을 蒐集 分析하여 지난 6月 中旬에 각 EC 會員國 代表들로 構成된 덤핑委員會에 上程시켰다.

이 機會에 우리의 主張과 意見을 審判官에 확실히 전하고 当地의 動靜을 살피기 위하여 벨기에의 브르셀에 있는 EC本部에 出頭하여 担当官과 執行委 当局과 長時間에 걸쳐 會晤를 가졌

으며 意見 交換을 가졌다.

여기에서 本會談의 細部的인 內容은 擧論하지 않겠으나 綜合的으로 보아 상당히 좋은 結果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完전한 結末은 오는 9月이 지나야 나올 것 같으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電子工業의 現況과 能力을 EC 關係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無知에서 오는 認識不足과 誤解가 많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나라 電子工業에 대한 상세한 說明을 하게 된 것만 하여도 큰 收獲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덤핑 提訴의 勝敗를 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時間이 걸리며 매우 技術的(法律上)인 것이다. 단순히 製品의 價格만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며 거기에서 오는 市場 攪亂과 提訴者가 가지고 있는 市場에 대한 損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輸入業체 및 消費者들의 發言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提訴業체들이나 被訴業체들도 生産과 市場推移, 他國 業체들과의 비교등의 資料準備로 엄청난 時間과 努力을 들여야 한다.

우리의 電子工業의 現況과 能力을 EC 關係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無知에서 오는 認識不足과 誤解가 이번 提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에 대한 상세한 說明을 하게 된 것만 하여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金 玩 熙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會長
韓國電子工業協同組合 理事長

EC와의 회담을 끝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電子業體 代表團과의 今年度 對英 黑白TV 輸出에 대한 再審 會談을 가졌다.

여기에서 會員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說明한다면,

첫째로 外國과의 輸出 物量 결정에 있어서 政府 主導型과 民間 主導型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電子 분야에 있어서는 美國과의 컬러TV 輸出은 兩國 政府間에서 原則이 결정되는 한편 歐洲 各 國家의 輸出 交渉은 대체로 業界 代表들 間에서 物量이 결정된다.

물론 政府 主導 交渉에 있어서도 資料 準備, 聽 問會에 証人으로서의 出頭 등의 실제적인 일은 여전히 業界가 책임져야 하며 民間 主導型 交渉에 있어서도 政府 代表가 옵서버로 참석한다.

今年度 對英 黑白TV와 오디오 製品 輸出量은 지난 80年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會談에서 增量이 決定된 것이었으나 英國 내의 需要 增成에 따라서 6個月 후에 다시 會合하여 再調整하게 合意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 美貨의 急騰과 英國 내의 政治的 不安으로 英國 市場은 景氣가 침체되어 가

고 있다. 따라서 本人 自身은 이 會談에 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와 각오를 하였던 것이며 동행하였던 우리 職員뿐 아니라 참여하였던 우리 政府 代表도 상당히 걱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旧面인 英國 業界 代表들의 태도는 매우 友好的이고 協助的이었으며 훌륭한 食事대 접도 받고 今年 下半期의 輸出量을 1万台 增量까지하여 주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성과에 대하여 이 會談에 참여하였던 駐英 大使館의 최낙춘 參事官은 매우 놀랐다고 말하며 日前에 참여한 對英 新발類 協商 때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며 좋아 하였다.

따라서 國家 對 國家나 業界 對 業界의 交渉의 成功 여부로 人間 關係 主張의 正當性과 明確性, 그리고 얼마나 相互 扶助와 協助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2년반 동안 수차에 걸쳐서 만난 旧面의 英國 代表들의 理解와 協助를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일반적인 對英 輸出만 固執하지 말고 英國 業界의 이익도 돌보아 주고 구체적으로는 英國 製品의 輸入 등 기타 방법으로 보답하여야만 우리의 友好的인 對英 關係가 지속되며 또 對英 輸出의 將來도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生産 製品의 輸出만을 생각하고 相對國 業界의 붕괴도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는 절대로 금하여야 된다. 相對 利益을 保存하는 방향과 施策만이 輸出 振興의 길이라고 믿는다.

EC黑白TV 덤핑 提訴도 伊太利 業体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는데 그들과도 業界끼리의 交流 상호 이익 향상의 노력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伊太利의 電子業界가 成長하려고 相当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 자신 이러한 사태를 미리 짐작하여 2年 전에 伊太利 電子電氣 機器生産業体協會와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우리와의 폭 넓은 交流를 상대방에서도 매우 원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후 豫算上的 곤란과 우리 業界들의 지원이 신통치가 않아서 交流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다.

쌍방 業界의 계속적인 相互理解 향상과 利益도모없이는 現在 全世界를 통하여 成行되어 가고 있는 国内産業 保護 主義를 뚫고 또 甚한 國際 貿易 競争을 이겨 나가기는 不可能한 것이다.

지난 2년여간 美国을 위시하여 歐洲各國, 그리고 南美의 주요 國家들을 방문하여 電子製品 展示會를 열고 세 일즈 活動을 전개한 것과 우리 電子工業의 現況을 설명, 各國 電子工業人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지고 브라질의 電子生



英RIC 회장 Griffiths氏와 金玩熙 會長

産 協會와도 자매 관계를 맺는 등의 노력도 이러한 긴 안목에서 國際協力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 電子製品의 輸出振興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는데 있어서 가장 명심할 것은, 外國業界에 韓國電子業界에 대한 경계심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生産製品의 輸出만을 생각하고 상대국의 業界의 붕괴도 개의치 않는다는 의도는 절대로 금하여야 된다. 상호 이익을 保存하는 방향과 施策만이 輸出振興의 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生産製品의 輸出만을 생각하고 상대국 業界의 붕괴도 개의치 않는다는 의도는 절대로 금하여야 된다. 相互 利益을 保存하는 방향과 施策만이 輸出振興의 길이라고 믿는다.